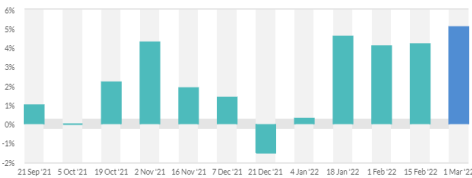




[가격동향] GDT 유제품 가격 2014년 3월 이후 최고치 기록

- 공급량은 부족한 반면 유제품 수요 급증으로 전장대비 5.1% 상승

Change in GDT Price Index



Summary of Results

| | | | |
|--|--------|---------------------------------|--------|
| Number of Winning Bidders | 112 | Number of participating bidders | 176 |
| Number of Bidding Rounds | 17 | Quantity sold (MT) | 25,208 |
| Duration of Trading Event (hours:mins) | 2:33 | | |
| Minimum Supply (MT) | 23,375 | | |
| Maximum Supply (MT) | 26,595 | | |

지난 3월 1일 실시된 GDT(세계유제품경매)에서 유제품 가격이 2주 전 대비 5.1% 상승하며 2014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지수 또한 1,593포인트로 전장대비 2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체다치즈가 전장대비 10.9% 오른 톤당 6,394달러(약 770만원)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버터가 톤당 7,086달러(약 854만원)로 5.9% 오르며 그 뒤를 이었다.

전지분유는 5.7% 오른 톤당 4,757달러(약 573만원)를 기록했고, 탈지분유도 톤당 4,481달러(약 540만원)로 전장대비 4.7%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관계자는 원유 공급량이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물량 확보를 위한 바이어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유제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 출처 : globaldairytrade.info, 3월 1일 >

[소비동향] 스위스, 코로나19 이후 유기농 유제품 수요 급증

-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기농 식품 소매 판매량 17% 증가



스위스에서 코로나19 이후 유기농 유제품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위스 연방 농업청(FOAG)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스위스의 유기농 식품 소매 판매량이 17% 증가하며 시장점유율이 약 11%에 달하고 있으며, 5% 이상이 소비자들이 팬더믹에 따른 소비 습관의 변화로 유기농 식품 구매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신선 채소류 및 감자가 가장 많이 팔렸고 우유 및 유제품, 시리얼 및 베이커리 제품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기농 식품 시장은 지난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매년 평균 9%씩 성장한 반면 동기간 비유기농 식품 판매는 연간 2.4%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업청에 따르면 팬더믹 기간 동안 변화된 소비 패턴이 계속해서 유지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유기농 식품 가격이 인하되거나 품목 확대 및 가정 외 소비 증가가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 : thecattlesite.com, 3월 1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